

## 〈성경칼럼 요한복음 여덟번째 : ‘그 때’ 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요한복음 7장에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요한의 독특한 필체로 예수님을 증언한다. 사실 요한복음 전체가 그렇다. 유대인들에게는 절기가 중요했다. 요한은 이미 2장에서 또 다른 절기인 유월절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유대인의 ‘절기’ 가 중요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물론 사람들은 절기를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적어도 유대인들은 그랬고 지금의 종교인들도 그렇다. 기다리던 절기가 오면 사람들은 갑자기 분주해지고 매우 종교적이 된다. 안그런가? 반면에 예수님은 절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있다. 예수님은 ‘때’ 를 중요시 여기셨다. 왜냐하면 ‘그 때’ 가 ‘하나님의 때’ 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때’ 가 오면 행동하셨다. 왜 그랬을까? 한번 들여다 볼까?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에는 ‘때’ 가 있다. 하나님은 정해진 ‘때’ 에 따라 활동하시고 역사 하신다. 세상이 창조되고 만물이 조성 된 것도 바로 ‘그 때’ 였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항상 지금이 ‘하나님의 때’ 인지가 중요했고 그 기준에따라 행동 하셨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없다 했을때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라고 하셨다. (2:4)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때’ 는 무슨 ‘때’ 일까? 많은 성경 학자들이 ‘내 때’ 를 십자가의 죽음을 나타내는 때 라고 본다. 그런데 아직 십자가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물로 포도주를 채워 주셨을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혼인 잔치의 신랑으로 표현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건 아닐까? 즉 다 없어진 포도주가 다시 차고 넘칠 ‘때’ 가 바로 사라진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때’ 임을 알고 행동하신 것으로 보고 싶다.

수가 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에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 할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신 말씀에서도 (4:23) ‘이 때’ 는 무엇을 의미한 것

일까?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당시 사람들이 예배 장소를 무척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예배 드리는 곳이 이산이냐? 예루살렘이냐? 가 중요했다. (4:20) 지금도 이런 일은 계속 된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때’ 라고 하신 것은 종말의 어느 시점에서 ‘이때’ 는 이곳 저곳의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 로 드리는 곳이 참된 예배가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보면 종말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장소를 중요시 여길 것이란 뜻이다. 그리고 그 후 추수나 심판에 관하여 말씀하셨을 때 ‘너희는 낙달이 지나야 추수 할 때가 이르겠다 고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노라’ 하신 것과 (4:35)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 나리라’ (5:25) 하신 ‘때’ 를 종말의 어느 미래의 ‘때’ 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예수께서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암시했다. 그러므로 종말 때에 일어날 추수는 이미 시작 되었고 생명의 구원의 말씀은 이미 들리고 깨닫고 믿는자들이 생기기 시작 됐다는 뜻이다.

7장에서 유대인들이 중요시 여기는 초막절이 가까이 오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위대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절기 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7:4)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넓은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이다. 이런 경우를 요한은 믿음이 없다고 규정한다. (7:5) 장소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것도 믿음과 관계 없듯이 기독교의 영광과 권위가 세상에 드러나기를 바라는 열망도 믿음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예수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너희 때는 늘 준비 되어 있느니라’ 고 답변하셨다. 예수님은 아직 예루살렘에 올라 갈 때가 아니라고 하신 것이지만 예수님의 형제들은 언제든지 올라 갈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의 때는 항상 열려 있다는 뜻이다. 그 후 예수님은 초막절 중간정도에 이르렀을 때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강론 하셨다. (7:14) 예수님에게는 예정되고 정해진 ‘때’ 가 있었다. 예수님은 ‘그 때’ 에 맞추어서 행동하시고 활동하셨다. 예수님은 정해진 ‘그 때’ 를 어떻게 아셨을까? 그 유일한 답변은 하나

다. 그와 함께 활동하신 분이 계셨기 때문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생각해 보겠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때’는 영광스러운 ‘때’를 의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적어도 12장까지는 그렇다. 그 후에는 ‘그 때’가 영광스러운 때로 바뀌지만) 여기서 ‘그 때’는 고통과 고난의 때요 십자가 죽음의 때를 의미한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셨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영광스러운 때’를 위해서만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신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유창하게 언급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때’는 오히려 그 반대다. 우리의 때는 우리가 죄로 망가지고 부서져서 다시 숨을 쉴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때 ‘그 때’를 통해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신다. ‘그 때’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때’다.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실 때에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군중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십자가의 수난과 고통속에서 그리고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사실의 ‘때’를 통해서 끝내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드러내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되면 오히려 하나님을 절제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이해 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만약에 당신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다고해서 하나님이 벌 주실까 마는) 난 그렇게 믿고 산다. 내 죄가 명백히 드러나는 때에 그 치욕적인 고통과 수치를 통해서 나를 고쳐가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나셨다. 그때가 나에게 '내때'다.

오늘날 교회에 거대한 십자가가 달렸다고.. 웅장한 건물이라고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기독교를 다시 생각해야 할거다. 100만의 대중이 모여 예배를 드린다고 ‘그 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고통을 품고 골

방에서 기도하는 한 영혼을 찾으시며 고된 삶으로인해 망가져 고통스러워하며 죄로 인해 수치를 느끼는 가련한 자들을 찾았듯이 그래서 여기 저기 장소에 상관 없이 혹은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곳이 바로 하나님의 때인 것이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신다. 이것이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것일 거다. 난 그렇게 생각한다. 아멘!